(772)

주체109
(2020)
11

차 례

표지: 새날이 밝아오는 려명거리　　사진 김성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앞에 이르시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여있는 모안영동지의 묘를 찾으시고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에 력사적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성전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땅 곳곳에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현지에서 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10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지난 9월 8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태풍피해가 혹심하고 조건이 제일 불리한 이 지구의 복구건설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현지로 단숨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한달사이에 검덕지구의 살림집건설 총공사량의 60%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면서 혹심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물들의 질이 높다고, 시공을 하나하나 깐지게 하고 정성을 들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일솜씨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준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받아안고 각지의 피해복구전선들로 급파되여 대격전을 벌리며 영웅신화와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이 있어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경축할수 있었고 경축의 광장이 더욱 빛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80일전투의 불씨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10월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우리 당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우리 조국의 부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다시한번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조선동해지구의 자연재해지역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중한 수도당원사단의 지휘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경축행사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있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문건설자들 못지 않게 살림집들을 손색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라고, 최정예 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기간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허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복구건설전역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건설경험교환 등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련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함경남도피해복구전투장들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구현된 새 살림집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기적적인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방건설에서 해당지역의 지대적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부단히 새로운 전형과 본보기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설계기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올해 장마철기간 지속적으로 내린 폭우와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커다란 물질적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들에서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마다 수재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깊이 념려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거듭 취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의 힘있는 건설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이 자연재해지역들로 급파되였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피해현장에서 쓰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들로 용약 달려간 평양의 당원건설자들도 있었다.

수재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보금자리를 안겨줄 마음안고 건설자들모두가 낮에도 밤에도 건설장을 떠나지 않았다. 서로 돕고 위하는것이 사회적인 기풍으로 되여있는 제도에서, 자신의 아픔보다 남의 불행을 더 가슴아파하는 사회에서 사는것을 긍지로 간직하고있는 그들이였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서

피해지역들에서 전해지는 복구건설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복구건설을 돕기 위한 증산활동이 전개되였다.

하여 지난 9월 17일 종전의 피해흔적조차 찾을수 없이 변모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수재민들의 새집들이가 진행된데 이어 10월초에는 황해남북도와 개성시의 복구지역들에서 수재민들이 새 살림집들에 입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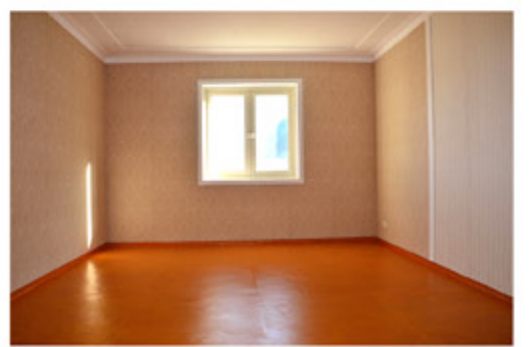
이곳에 달려온 인민군건설자들이 820여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하여 현지주민들에게 안겨주기까지는 2개월 남짓한 기간이 걸렸다.

10월 18일에는 조선동해지구인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와 경포로동자구에서도 수재민들의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졌다.

이 살림집들은 끊어진 수십리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면서 홍원군과 리원군의 피해지역들로 진출한 수도의 당원건설자들이 착공한 날부터 밤낮이 따로 없는 건설을 진행하여 불과 18일만인 9월 29일까지 훌륭하게 일떠세운 문화주택들의 일부이다.

그림같이 황홀한 선경마을의 새 집을 받아안은 주민들마다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금천군 강북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장원 장룡희는 이번 강풍에 의해 파괴된 살림집을 놓고 걱정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던 우리들이였다, 그런데 이렇듯 희한한 새 집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하였다.

은파군 대청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다는 양히섭로인은 새 집의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돈 한푼 안 들이고 이런 희한한 집에서 살게 된것이

함경남도 홍원군의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에서

너무도 꿈만 같아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 재난당한 사람들이 불행이 아니라 복을 받아 안는 이런 별세상을 로동당세월이 아니고서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홍원군 경포로동자구에서 사는 김호렬도 뜻밖에 들이닥친 대재앙이 집과 가산을 송두리채 앗아갔어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사랑의 손길은 자연이 몰아온 화를 복으로 바꾸어놓았다, 정녕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고 토로하였다.

사진 홍광남, 조선중앙통신 글 김필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생산한다

-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

지난 10월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이 개건되여 준공하였다.

주체107(2018)년 8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본보기공장, 맏아들공장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군인건설자들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수십여개 대상의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생산환경을 국제적기준에 맞게 꾸려놓았다.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기술자, 기능공력량도 튼튼히 꾸리고 새 의료기구개발도 립체적으로 밀고나갔다.

오늘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는 수술대, 해산대, 진찰침대, 환자운반밀차,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 치과종합치료기를 비롯한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들이 생산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영조

삼지연시인민병원

량강도 삼지연시에 지방병원의 본보기와도 같은 병원이 건설되여 지난 10월 15일에 개원하였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모든 과들에 그쯘히 갖추어진 의료설비와 기구들은 하나같이 최신식이다.

병원에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여있으며 치료사업의 정보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필요한 조건이 원만히 구비된 입원실들과 기능회복을 위한 운동치료실, 어린이들의 놀이장들과 실내공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성요소들이 완벽한 삼지연시인민병원이 일떠섬으로써 이곳 시민들은 물론 조선의 제일명산인 백두산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현대적인 의료봉사를 받게 되였다.

사진 윤혁 글 최광호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원만히 구비되여있는 삼지연시인민병원

청춘의 대지 세포등판

강원도의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자리잡고있다.

예로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눈,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한 이 일대에는 근 10년전까지도 잡관목과 새초들만 무성했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달려온 개간자들에 의하여 불과 5년도 못되는 기간에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여 주체106(2017)년 10월에 준공을 선포하였다.

5만여정보에 달하는 대초원에 수백정보의 바람막이숲과 1만 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 2 000여㎞의 방목도로와 배수로, 저류지 등이 꾸려졌다.

그리고 통합생산체계와 수의방역체계가 확립된 현대적인 목장들과 축산물가공기지들이 일떠섰다.

오늘 이곳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회에서는 종합생산지령실을 통하여 풀판비배관리와 병해충예보, 집짐승사양관리 및 수의방역체계를 실시간적으로 감시 및 지휘하면서 축산기지운영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세포축산학연구소에서는 세포지구의 특성에 맞게 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벌써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애국소목장을 비롯한 여러 목장들에서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수의방역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있다.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우고 선진적인 사양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여 그 마리수를 해마다 늘여나가고있다.

하여 아득히 펼쳐진 세포등판의 어디서나 젖소와 양, 염소떼들이 줄지어흐르는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고기와 젖들은 평강고기가공공장에서 훌륭한 가공품들로 전환되여 인민들에게 보내여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리철진 글 최의림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는 고기가공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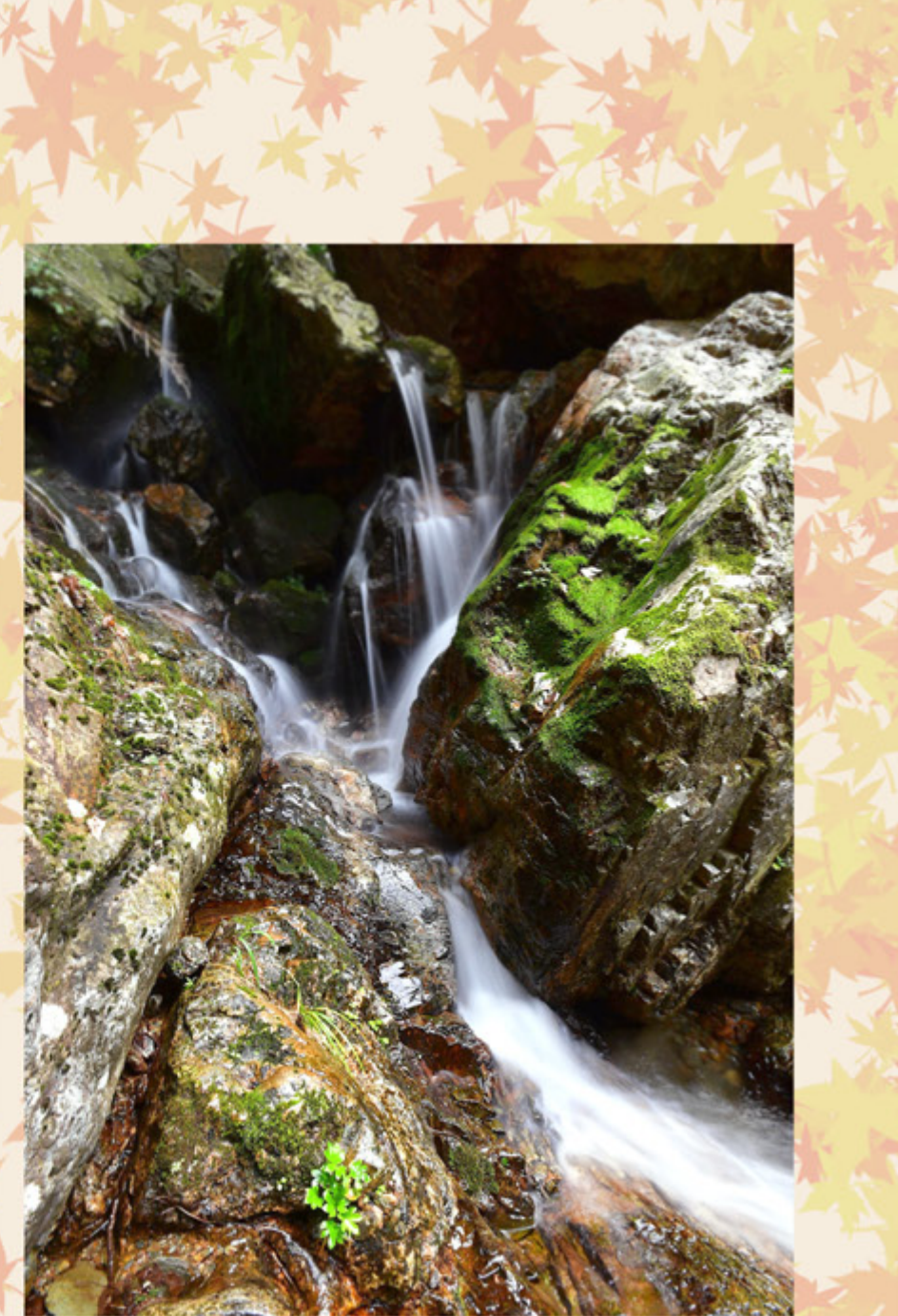
구름우에서 본 평양

새날이 밝아오는 려명거리　　사진 김성진

조선의 위상　　　사진 김선영

대동강반의 새 모습　　　사진 김성진

창전거리의 아침　　　사진 윤지성

명승지 신평금강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따라 황해북도 신평군경내를 지나느라면 신평금강명승지가 나진다.

평화리 도화동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명승지는 이름그대로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곳의 특징은 계곡경치인데 진주계곡,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구룡계곡과 만물상계곡 그리고 도화동계곡과 총석정계곡으로 불리우는 8개의 계곡이 조밀하게 분포되여있다.

한 계곡에 들어서면서 보았던 풍경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앞에서 볼 때는 막힌듯 하였는데 가까이 가면 또 다른 골과 풍치가 펼쳐진다.

맑은 물이 폭포와 담소 등을 이루며 사시절 흐르는 계곡들에는 가지가지의 명소들도 많다.

오랜 세월 아호비령산줄기의 심산속에 묻혀있던 이곳의 절승경개는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감탄과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사진 김성철, 김혁철 글 최성순

강철생산으로 들끓는 강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체의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모두 발동하여 올해의 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설비들의 만가동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대책들이 적극 취해지고 원료와 자재보장이 따라서는 속에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도 고조되고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장입으로부터 용해, 조괴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치차처럼 맞물려놓고 초고전력전기로들을 비롯한 전기로들과 련속조괴기 등의 관리와 운영을 짜고들어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의 로동자들이 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 가스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그 량을 늘이기 위한 대중적인 기술혁신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압연직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도 가열로와 압연기들을 비롯한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생산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집단적인 경쟁열풍이 일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미예

과일군의 풍요한 가을

조선서해연안에 위치한 황해남도 과일군은 이름그대로 가는 곳마다 눈뿌리 아득한 과일나무바다를 펼치고있다.

사과꽃, 배꽃 등 과일나무꽃들이 활짝 핀 봄계절의 풍치도 아름답지만 탐스런 열매들이 나무마다 가지마다 주렁진 가을의 풍치는 더더욱 장관을 이룬다.

올해에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 봄내여름내 많은 수고를 기울여온 과일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다.

군에서는 년초에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린비료공장을 일떠세워 과일생산을 늘이고 맛도 개선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

과수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올해의 과수농사를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송곡, 염전, 신대과수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과수농장들에서는 과일나무품종에 따르는 그루바꿈과 거름주기, 가지자르기, 꽃가루수정, 열매솎아주기 등 매 영농공정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꾸준히 짜고들었다.

그리고 수종별, 품종별생육상태와 영양조건에 맞게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 등 여러가지 비료주기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하여 례년에 보기 드문 폭우와 태풍이 련이어 들이닥쳤던 올해의 불리한 이상기후조건에서도 풍요한 가을을 변함없이 펼쳐놓았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산촌의 나무모생산기지

지난 6월 평안남도에서는 평성시 운흥리지구에 새로 일떠선 도양묘장의 준공식이 있었다.

근 20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평안남도양묘장에는 도안의 산림복구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을 위한 온실들과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여기서 기본역할을 수행하는것은 8 000㎡의 생산면적을 가지고있는 4개의 수지경판온실들이다.

빛가림판과 관수식 및 안개식분무기, 배풍장치들과 관측설비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구비되여있는 이곳에서 싹트고 뿌리를 내린 나무모들은 일정한 기간을 거친 다음 야외의 적응구로 옮겨져 계속 자라게 된다.

이 방법으로 양묘장에서는 한해에 두번 나무모재배를 하게 된다.

양묘장의 야외재배장과 풍토순화용도입시험장, 원형삽목장들에서는 벌써 수많은 나무모와 나무들이 푸른 잎들을 기세좋게 펼치고 설레이고있다.

모든 온실들과 재배장들의 온도, 습도, 빛세기,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조절된다.

도의 산림과학발전과 양묘기술보급을 선도해나갈수 있는 연구력량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의 년간생산능력은 2 000만 그루이다.

사진 신충일 글 최의림

아기들의 요람을 지켜 40년

어머니날인 11월 16일을 기쁨과 긍지속에 맞이하는 조선의 어머니들가운데는 평양산원 기술부원장 박성숙도 있다.

평양산원의 자랑스러운 발전로정에는 그의 자취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주체44(1955)년 강원도 천내군의 한 로동자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소녀시절부터 꽃이나 나무모들을 심어 가꾸는것을 무척 즐겨했다.

박성숙이 앞으로 원예사나 식물학자가 될것이라고 추측했던 어릴적동무들은 그가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였을 때도 자신들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식물을 키우는것과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것은 대상만 다를뿐 같지 않은가.

대학시절에도 최우등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성숙은 졸업후 새로 일떠선 평양산원(1980년 7월에 준공)의 의사가 되였다.

그것도 다름아닌 애기과 의사가.

그는 보육학적규정을 따져가며 의료봉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모자람을 느낀 그였다.

매일 끊임없이 등록되는 새 생명들, 무엇이 요구되고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기들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알맞는 대책을 세운다는것은 말처럼 간단치 않았다.

특히 조산아로 태여난 3태자, 4태자들과 관련한 보육방법 같은것은 구체적으로 서술된것이 아직 없었던것으로 하여 더우기 힘겨웠다.

그러던 어느날 성숙은 꽃을 가꾸는 일은 결코 과학적리치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한 원예사의 글을 읽게 되였다.

애기들을 보육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애기들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리라 결심하였다.

이 분야의 관록있는 의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들을 배웠다. 특히 지난 시기에 3태자, 4태자들을 받아낸 병원들과 의사들을 빠짐없이 만나 다태자들의 보육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점차 높아가는 의술과 풍부해지는 경험에 토대하여 그는 갓난아이들의 보육방법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체계화해나갔다.

이 과정이 그를 산원적으로 제일 우수한 애기과 의사로 되게 하였다.

그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기가 수십년동안 터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료들과 후배들뿐아니라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도 다 알아서 튼튼한 아이들을 키우기를 그는 소망하였다.

하여 바쁜 의료활동속에서도 갓난아이들의 영양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수많은 론문과 소론문, 도서들을 집필, 발표하였고 여러편의 다매체편집물도 만들어내놓았다.

그중에서 주체98(2009)년에 집필한 도서 《갓난아이편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본으로 되고있다.

그는 인민의사, 박사, 부교수이며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이제는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머니일지라도 평양산원에서 태여나는 아기들에게 박성숙은 의연히 어머니 다음가는 《두번째 엄마》이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평양산원 기술부원장 인민의사 박사 부교수 박성숙

박성숙은 다태자들을 비롯한 갓난아이들의 치료과정에 쌓은 림상경험들을 체계화한 도서들과 다매체편집물들을 만들어내놓았다.

박성숙은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퇴원시키였다.

주체101(2012)년 타이에서 진행된 어린이영양강습에 참가한 박성숙

밝게 웃어라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에 평천구역 미래탁아소가 자리잡고있다.

주체104(2015)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수도의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이 거리가 일떠설 때 건설된 탁아소는 어린이보육은 물론 그들의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각각 25개인 보육실과 잠방, 운동놀이실과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의무실 그리고 복도들의 벽에 붙여진 400여점의 그림장식들…

과학자살림집지구에 있는 4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이 모든 시설의 주인들이다.

모든 탁아소들과 마찬가지로 이 탁아소에서도 가장 선차적인 사업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는것이다.

하기에 젖먹이들까지 포함한 600여명에 달하는 탁아소안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영양관리를 보육학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곳의 보육일군들이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탁아소에서의 생활에 재미를 느끼도록 일과들을 작성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그리고 노래와 춤배우기, 지능놀이 등을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찾아내는 사업도 계속 짜고들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가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주원, 김권홍, 지한림 등은 이곳 탁아소생들이다.

사진 리진혁 글 김미예

극장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 공연이 진행되였다.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평양시민들과 청년들치고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다.

주체48(1959)년 5월에 개관된 때로부터 이곳은 수도청년들의 주요한 문화예술활동거점의 하나로 되여왔다.

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이 극장은 올해에 자기의 모습을 또다시 일신하였다.

관람석이 1만 200여석으로 늘어나는것과 함께 극장내부도 완전히 변모되였다.

창작실, 분장실 등은 물론 문학, 화술, 성악, 무용분야의 소조실들 그리고 새로 생긴 정보기술소조실, 민속유희오락실이 모두 훌륭하게 꾸려졌다.

음향, 조명시설들을 비롯한 설비들도 현대적으로 갱신되였다.

올해초에 다시 개관된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지난 10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사진 신충일, 리진혁 글 최의림

무용소조실, 자동차소조실, 정보기술소조실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여러 소조실들이 꾸려져있는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백다섯살 장수자

백다섯살장수자 황창봉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 백다섯살 난 황창봉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로동신문》을 보고있었다. 놀라운것은 그가 안경도 끼지 않고 신문을 보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물음에도 제꺽제꺽 대답해주었다.

황창봉할머니는 주체4(1915)년 11월 16일 경기도 김포군(당시)의 빈농가정에서 다섯형제의 막내로 태여났다고 한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일곱식구에게 차례진것은 팔다리도 펴기 힘든 자그마한 단칸방에서의 절망적인 생활이였다고, 그후 가정을 이루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오늘의 강원도 원산시에 눌러앉았으나 가난은 여전했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해방(1945. 8. 15.)후에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할머니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부모들은 모두 일찌기 돌아갔지만 자기는 좋은 제도에서 살다보니 오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증손자들까지 50명이 넘는 대식솔의 가장이 되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자식들을 통해서 들으리라고 생각했던 로인의 래력을 본인으로부터 듣고있는데 진료소의 호담당의사가 방안에 들어섰다.

할머니는 아픈데도 없는데 매일 의사가 집에 찾아와서 진찰을 하고 보약도 지어다준다고 눈굽을 찍었다.

담당의사는 할머니가 장수하는 비결은 항상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관심을 쓰며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데 있다고 하였다.

자식들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10년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모든 동자질을 도맡아하였다.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로인의 근면성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할머니는 돈 한푼 받지 않고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제도와 다정한 이웃들의 인정에 의하여 자기가 장수한다고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황창봉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여 자손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는 집을 나섰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장애를 딛고

남포시 천리마구역에서 사는 김영록은 22살 나는 주체105(2016)년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의 탁구선수로 선발되였다.

11살때 사고로 두팔을 잃었으며 20살부터 탁구를 시작하였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그이다.

그러한 김영록이 장애를 박차고 체육활동에 참가할것을 결심하여서부터 훌륭한 탁구기술을 련마하기까지의 전과정은 인간의 강의성이란 어떤것인가를 생각케 한다.

그는 지난해에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 복식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국제탁구련맹 방코크장애자공개탁구경기의 단식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사진 손희연 글 박병훈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김영록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벽화무덤 2기와 여러 유물들을 새로 발굴하였다.

벽화무덤들은 월지리에 분포되여있는 수많은 옛무덤가운데서 5기의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 류천과 현천지역에서 각각 발굴되였다.

류천지역에서 발굴된 벽화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돌칸흙무덤이고 벽화의 기본주제는 사신도이다.

천정에는 련꽃무늬와 구름무늬, 련꽃잎과 보리수, 거북잔등무늬들과 함께 지금까지 고구려벽화무덤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별자리들이 그려져있다.

현천지역에서 발굴된 벽화무덤도 돌칸흙무덤이며 여기서는 해를 형상한것을 비롯한 많은 벽화쪼각들과 함께 순금으로 된 9점의 유물들이 나왔다.

글 박영조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발굴된 벽화무덤의 봉분

무덤들에서 발굴된 금장식품들

거북잔등무늬

련꽃

평행삼각고임천정

구름무늬

보리수

별자리

낸곳 : © 조선화보사 2020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편집 유충일 13606-2080289

화보《조선》은 인터네트《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평금강의 가을 사진 김혁철